



생산성 저하에 따른 계란 가격상승으로 산란계농가 불안감 조성

◆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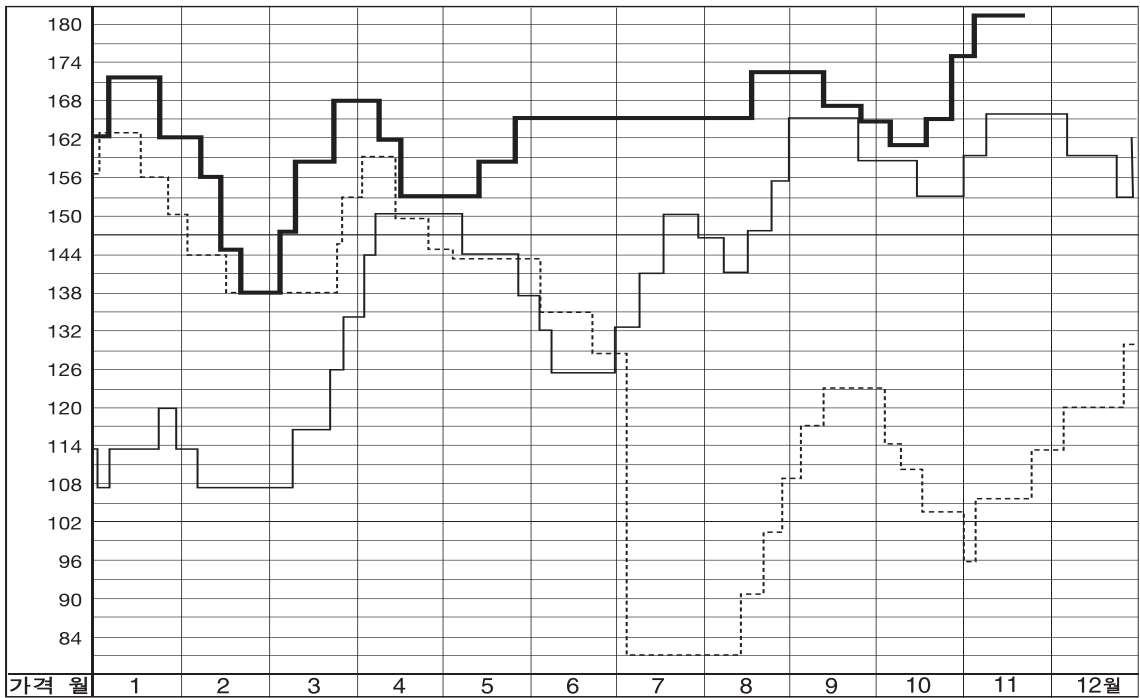
산란계 사육수수의 증가로 인한 과잉공급이 예상되면서 4분기 난가전망은 어두울것으로 예측하였다. 하지만 예측과는 달리 산지에서는 생산성을 크게 저하 시키는 난계대성으로 의심되는 질병 발생, 저품질 사료로 인한 산란율 하락, 내년 명절을 맞추기 위한 노계 도태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결합되면서 실제 사육수수 대비 생산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아 현재의 난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난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산지 할인거래폭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유지를 하고 있으나, 난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실제 농가에게 지급되는 계란가격은 생산비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어서 국제곡물가격 폭등에 따른 국내 사료가격 인상, 축산강국들과의 FTA체결, 정책자금 금리 인상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란계농장 경영 부담이 극한으로 치달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자료분석

지난 10월 산란종계 입식마리수는 22,880수로 전월(44,960수)대비 49.1% 감소하였으며, 전년동월(20,000수)대비 14.4% 증가하였다. 산란실용계 병아리 판매수수는 3,700천수로 전월(3,460천수)대비 6.9% 증가하였으며, 전년동월(3,442천수)대비 7.5% 증가하였다. 9월 육추사료 생산량은 31,668톤으로 전월(29,905톤)대비 5.9% 증가하였으며, 전년동월(27,660톤)대비 14.5% 증가하였다. 산란사료는 174,556톤으로 전월(174,398톤)대비 0.1% 증가하였으며, 전년동월(167,877톤)대비 4% 증가하였다. 8월 산란종계사료는 5,138톤으로 전월(5,138톤)대비 변동없으며, 전년 동월(5,420톤)대비 5.2% 감소하였다. 한편 8월 산란성계육은 2,879천수로 전월(2,208천수)대비 30.4% 증가하였으며, 전년동월(2,724천수) 대비 5.7% 감소하였다. 올해 3/4분기 가축사육통계에 따르면 산란계 총마리수는 6,526만수로 전분기(6,285만수)대비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이상 사육수수는 4,881만수로 전분기(4,734만수) 대비 3.1% 증가하였으며, 3~6개월 병아리 사육수수는 760만수로 전분기(678만수)대비 12.1% 증가하였으며, 3개월미만 사육수수는 873만수로 전분기(885만수)대비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망

산지난가는 공급량 감소로 인하여 연말까지 강보합세가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낙관할 만한 상황은 전혀 아니다. 전라도지역에서 고병성AI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지난 10월 달 병아리 판매수수(36,031천수)는 지난해 병아리 판매수수(36,200천수)에 96%까지 육박하여 11월에는 초과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3분기 통계청의 가축사육동향에 따르면 산란계사육수수는 6천5백만수로 오차범위를 고려한다면 현재 7천만수가 넘는 닭이 사육중이며 아직도 병아리가 없이 산란종계부화장의 예약물량이 줄지 않는 상황이다. 비대해진 산란계 사육수수로 인하여 난가는 언제든지 폭락할 수 있는 상황으로 산란계산업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 2012.7.6 계란가격 현실화 차원 D/C폭 47원 줄임 **특란기준 계란가격(개당)** 2012-- 2013- 2014-

▶ 병아리·사료·계란생산(잠재력) 및 가격

월	연도	중 계 입식수 (수수)	실용계 생산수 (천수)	사료(천톤)		산란 실용계 (원)	서울 특란가격 (10개원)
				육추	산란		
1	2011	11,000	2,380	27.1	181.0	1,200	1,595
	2012	20,000	3,313	29.8	175.8	1,338	1,589
	2013	63,000	2,139	27.0	181.9	1,075	1,079
	2014	45,300	3,499	28.4	192.2	1,050	1,678
2	2011	0	1,659	22.5	154.6	1,336	1,629
	2012	0	3,127	29.6	163.3	1,300	1,417
	2013	74,880	633	25.6	155.4	1,075	1,088
	2014	5,160	3,842	24.7	168.5	1,050	1,474
3	2011	65,600	2,317	24.1	173.7	1,450	1,676
	2012	10,600	3,296	31.2	177.4	1,272	1,420
	2013	18,000	3,819	22.7	166.7	1,066	1,145
	2014	64,000	2,635	25.4	176.7	1,172	1,570
4	2011	61,500	2,196	22.0	167.9	1,438	1,670
	2012	137,520	3,245	29.2	171.0	1,239	1,528
	2013	31,000	3,691	22.6	178.8	1,050	1,480
	2014	48,000	4,194	27.8	176.5	1,321	1,596
5	2011	128,092	2,959	23.9	171.9	1,450	1,625
	2012	50,000	3,686	32.0	172.3	1,200	1,405
	2013	50,000	3,430	26.3	176.8	1,050	1,451
	2014	54,080	3,752	29.7	175.6	1,450	1,582
6	2011	85,300	2,958	25.9	163.0	1,450	1,614
	2012	0	3,281	30.1	163.6	1,175	1,332
	2013	49,920	2,832	29.2	151.0	1,050	1,282
	2014	48,500	3,273	28.7	163.8	1,450	1,650

※2009년 11, 12월 실용계 생산수 변경

7	2011	0	2,871	25.3	149.1	1,450	1,495
	2012	0	2,700	28.6	158.5	1,150	886
	2013	79,500	3,453	29.3	166.9	1,050	1,432
	2014	52,500	4,258	31.4	172.0	1,450	1,650
8	2011	49,080	2,644	28.5	170.0	1,450	1,706
	2012	84,000	2,850	27.3	159.2	1,028	911
	2013	53,000	3,205	27.3	162.6	1,050	1,478
	2014	45,000	3,418	29.9	174.4	1,450	1,679
9	2011	83,200	2,516	28.5	162.9	1,450	1,625
	2012	52,000	2,347	24.9	167.5	1,050	1,195
	2013	11,000	3,225	27.7	167.9	1,050	1,633
	2014	44,960	3,460	31.7	174.6	1,450	1,691
10	2011	43,500	2,955	28.1	166.2	1,450	1,454
	2012	94,000	3,105	26.2	170.8	1,080	1,095
	2013	20,000	3,442	31.2	178.4	1,050	1,557
	2014	22,880	3,700	33.4	188.9	1,406	1,647
11	2011	96,692	3,086	27.8	169.3	1,450	1,580
	2012	0	3,526	26.7	168.8	1,100	1,095
	2013	45,760	3,128	28.9	177.3	1,050	1,640
	2014						
12	2011	41,600	3,697	30.9	180.8	1,439	1,515
	2012	0	3,721	27.3	181.5	1,100	1,713
	2013	59,200	3,203	29.9	188.8	1,050	1,590
	2014						
계	2011	665,564	32,238	314.5	2,010.0	1,418	1,599
	2012	493,880	38,198	343.1	2,029.7	1,169	1,299
	2013	554,960	36,200	327.6	2,052.5	1,056	1,405
	2014						